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인터뷰

금융단지·평화특구 남구발전 프로젝트 완성

김 정 훈 (남구갑 당선자)

"남구발전의 두 축이 될 UN평화문화특구와 문현금융단지 조성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해 국제평화도시 남구와 부자남구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김정훈(남구갑) 당선자는 남구를 국제금융도시와 세계적인 평화·문화·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당선 소감은.

▲먼저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3선 의원으로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겠다.

－이번 선거에서 밝힌 주요 공약은.

▲선거기간 내내 유권자들에게 "남구의 큰 일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다가섰다. 국회의원의 꽃이라고 하는 3선 의원으로 당선되면 남구발전의 큰 축이 되는 문현금융단지를 국제금융도시의 중심지로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하나 세계 유일의 UN평화문화특구를 국제평화도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두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부자남구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와 함께 문현금융단지와 UN평화문화특구 관련 사업에 남구민을 우선 채용토록 하겠다는 약속과 복지·교육거점도시·문화예술도시 건설을 공약했다. 재래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다짐했다.

－지역 현안과 해결 방안은.

▲현재 남구의 가장 큰 현안은 재개발 문제이다. 관련법에 묶여 집수리를 못하고 공가가 속출하는 등 큰 문제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시는 뉴타운개발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공무원인 '갈등조정관'제를 도입하고 있다. 허남식 시장과 이종철 구청장을 만나 의견을 조정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주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구에는 지금 문현금융단지에 63층 규모의 국제금융센터가 건립 중이고 UN평화문화특구에는 1,100억원을 들여 일제강제동원역사관과 UN평화기념관 등이 들어서고 있다. 앞으로도 2,000억원이 더 투입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방세수 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유경희 기자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남구의 아름다운 변화 모색

서 용 교 (남구을 당선자)

초선의 서용교 국회의원 당선자는 "당선증을 받고나니 기쁨보다는 어깨가 무겁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오직 주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뛰겠다"는 말로 당선 소감을 밝혔다. 공천이 상대적으로 늦어 선거운동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원해 준 지역민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서용교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번 선거기간동안 '남구의 아름다운 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주민들과 만났다. 대책 없이 무조건 바꾸고 갈아 엎겠다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우리 남구를 위한 변화와 발전을 이뤄 내겠다는 의지를 약속했다.

또한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백운포 마리나 등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서용교 당선자가 생각하는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일까.

서 당선자는 가장 먼저 재개발 문제 해결을 들었다. 지자체와 건설사 주도로 추진된 재개발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당장 살고 있는 집이 허물어져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게 그의 걱정이다.

서 당선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 현실적으로 힘든 지역은 속히 해제를 해서 답보 상태에 있는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종결해 주민들의 시름을 달래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당선자는 무엇보다 분담금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법적 검토를 마치고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킬 각오이다.

또한 백운포 마리나 사업을 비롯한 문화·관광벨트 조성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남구의 격을 다시 한번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용당동에 제2 화물주차장을 건립해 컨테이너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시설 부족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남구의 다양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서용교 당선자는 "남구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던 학창시절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던 곳"이라며 "선거기간 약속드렸듯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민원실'로 항상 개방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뢰받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윤선자 기자

■ 반갑습니다 – 용당동 가나병원 윤형곤 원장

내가 주인공 되는 삶을 살아야

6명 중 1명이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통계 보도가 있듯이 현대인의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부터 용당동 가나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윤형곤 병원장을 만났다.

현대인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는 물음에 윤 원장은 "최근 발생한 수원 여성 납치 살해사건과 미국 오클라호마 총격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건 사실"이라며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현대인들의 정신질환 해소에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암과 뇌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률 4위에 오른 자살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살요인의 상당부분 정신질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윤 원장은 최근 인기 연예인들이 잇따라 자신의 정신질환 전력을 공개하고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한다.

"어느 가수가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정신건강을 위해 스스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예인들이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환기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윤 원장은 정신건강을 해하는 요인에 대해 "유전학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아노미에 빠지는 경우가 가장 큰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추천하는 정신건강법 ③

1. 자기 감정에 솔직해라
2. 나만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라
3.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라

그렇다면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윤 원장은 먼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라고 조언한다. 한마디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슬픔을 표출하는 것이 정신건강에는 좋다고.

다음으로 외적 스트레스에 대한 나만의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것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오랜 시간 학습해야 한다.

윤 원장은 마지막으로 화목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라고 강조한다. 그는 정신과 가정은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만큼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건강한 정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대부분이 이혼과 사별 등 가정불화를 겪었거나 겪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신건강법에 대해 말하는 윤형곤 원장.

윤 원장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지만 모든 일을 함에 있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주문했다.

윤형곤 원장은 부산대 BK21고급의료인력양성사업단 연구교수를 역임하고 대한정신병원협의회 이사와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옥련 기자

■ 경로당 탐방 – 용호1동 일신님 2차 아파트 경로당

"웃음꽃 피우고 정 나누며…"

남녀 회원 오누이처럼 지내

요가·한자수업 통해 평생학습

남녀 어르신들이 오누이처럼 화목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이 있다.

용호1동 일신님 2차 아파트 경로당(회장 김영섭).

지난 2007년 아파트 건립과 함께 문을 연 이곳 경로당은 20여명의 회원들이 드나들며 휴식을 취하고 때로는 건강강좌를 들으며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있다.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는 여느 관광지 콘도와 같다. 여기에 최신의 노래방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다른 경로당 회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요가를 통해 건강을 다져온 이곳 어르신들은 얼마 전부터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안마를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운동을 할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헬스장을 찾아 근력을 키우고 있다.

경로당에는 할아버지가 3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할머니들과 내외했다. 하지만 회원수도 얼마 되지 않는데 같이 지내자는 할머니 측 요구를 받고 함께 생활하게 됐다고.

일신님 2차 아파트 경로당 회원들이 노래 솜씨를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해 87세인 김영섭 회장은 경로당 개소 때부터 회장직을 맡으며 경로당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원성훈(80) 사무장은 분위기 메이커로서 경로당 분위기를 항상 밝게 이끌고 있다.

이곳 어르신들은 당번을 정해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모자라는 밑반찬은 각자 집에서 가져와 정이 흐르는 풍성한 자리를 마련한다.

최고령 박용순(90) 할머니와 경로당 가수 김명선(70) 할머니는 "우리 경로당은 너나 할 것 없이 솔선수범해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며 "한자공부 등을 통해 평생교육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곳 어르신들의 소망은 다른 경로당 어르신들의 소망과 진배없다. 늘 자식들의 행복과 자신들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자는 잠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김정희 기자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배도성 회장 유임

바르게살기운동남구협의회 배도성 회장이 지난 1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으로 유임됐다.

배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바르게살기 남구협의회는 진실과 질서, 그리고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민·관·학과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도성 회장은 지난 2007년 6월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3차례 연임하며 회원 화합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협의회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 회장은 오동산업 대표와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대표, 전 남구라이온스클럽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왕성한 사회활동도 보이고 있다.

민원인이 곧 나의 가족

오륙도 친절지기

문현1동 전 현 정 씨

상냥한 말투 화사한 미소 귀감

업무연찬 통해 민원해결 노력

"오시는 분들 모두 내 부모형제라 여기고 성심으로 대하는 것이 친절이라 생각합니다"

사월처럼 상큼한 새내기 공무원 문현1동 주민센터 전현정(27·사진)씨의 친절마인드다. 친절이 몸에 밴 듯 그녀는 조심스런 말투에 밝고 부드러운 인상이다.

친절평가 카드를 보내온 김정인(문현3동)씨는 주소지 이전 문제로 주민센터를 방문, 퇴근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방법부터 하나하나 설명하고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현정씨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며 여타 공무원의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현정씨는 2010년 10월 문현1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 주민등록 전·출입, 제 증명 및 말소 업무를 맡고 있다. 쉬워 보이는 일도 막상 업무에 들어가면 막히는 게 많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틈틈이 공부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업무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친절,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이 그녀가 지향하는 친절한 공무원상이기도 하다.

간혹 법의 카테고리를 벗어나 억지를 부리는 민원인들을 대할 때는 현정씨도 곤욕을 치른다.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되레 야단을 치는 민원인들에겐 이해할 때까지 차분한 어조로 설명을 하면 대부분 수긍을 한다고. 이런 일들을 겪다보면 살짝 회의감도 들지만 초심을 잊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잡곤 한다.

현정씨를 힘들게 하는 민원인보다 작은 친절에도 크게 감동하는 민원인들이 더 많아 보람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편이라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고맙다는 인사말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 버린다"는 그녀는 등산, 운동을 좋아하고 요즘엔 낚시에도 재미를 붙이고 있다.

동료 제소진(33)씨는 "민원인들에게 상냥하고 업무적으로 적당히 넘어가도 될 상황을 꼼꼼히 처리하는 능력 있는 신입사원"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두래 기자

■ 우리구 이사람

"100가지 약초로 비누 만들어요"

남구동행푸드마켓에 매달 온정

대연3동 백초라이프 박덕자 대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이웃을 만났다.

남구동행푸드마켓에 매달 직접 만든 백초효소비누를 기부하고 있는 백초라이프 대표 박덕자씨.

나눔의 정보는 남구신문에 남구동행푸드마켓 기사를 보고 성품을 기탁하는 기업체와 독지가들의 정성에 감동받았다.

많은 성품을 기탁하는 분들에 비하면 너무 보잘 것 없는 기부를 하고 있어 오히려 미안하다는 박 대표. 오랜 기간 연구하여 특허를 받은 건강 미용제품, 건강식품을 이제 세상에 내어 놓게 되면서 작은 나눔이나마 함께 하고 싶어서 동참하게 되었다고 한다.

박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10년 전 문경에 있는 어느 암자에서 솔잎효소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부터 효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산과 들에 자라나는 야생초와 편백, 솔잎, 오가피, 현미, 율무 등 자연의 모든 식물들은 좋은 재료가 된다.

이 재료들은 몇 년 동안 발효와 재발효의 과정을 거친 후 그 효소를 가지고 다시 효소를 만들어 술을 담는다. 윗물은 식초를 만들고 그 찌꺼기는 비누와 또 다른 건강제품을 만든다고 한다. 이 밖에도 청국장에 다시마, 산야초(백초)효소를 넣어 환을 만들어 먹고, 식초와 산야초효소를 콩에 넣어 발효 시켜 먹으면 몸이 가볍고 얼굴도 환해진단다.

박덕자 대표가 자신의 연구소에서 백초효소비누의 효능을 얘기하고 있다.

백초효소비누 또한 아토피, 여드름, 건선 피부를 매끈하게 하고, 까망머리 효소샴푸는 비듬, 두피, 지루성피부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한다.

30여 년간 서운암에서 다도를 가르쳐 온 박 대표는 올해부터는 그 제자들과 함께 몸을 살리는 건강제품을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일반인에게 선보여 평가 받고 싶다고 한다.

돈을 버는 것 보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보듬어 주고 싶다고 한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에.

황령산 자락으로 이사를 온 이유도 발효 때문이었다. 이곳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참 좋은 곳이란다. 바람이 부는 날은 황령산 편백숲에서 떨어진 열매를 줍기도 하고, 봄에는 여러 가지 풀들을 채취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모든 풀들은 다 약초가 되기에 길가에 싹을 틔운 작은 풀잎도 참 소중하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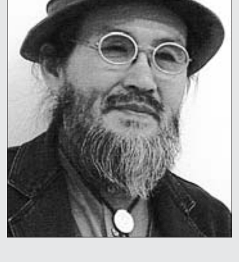
박 대표의 오랜 연구가 빛을 보게 되는 일이 있으니 바로 '전통 발효식품 효소개발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상공인 진흥원과 동의과학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온 것이다.

약초 향이 진하게 배어있는 작업실 한쪽 벽에 걸린 작은 액자. 2006년 '제 1회 발명요리경진대회' 장려상과 2010년 '산야초 건강미용제 제조방법' 특허증의 이 액자들은 박 대표의 도전과 열정에 힘찬 응원을 더 해 주리라.

최정순 기자

서상환 화백 개인전

'신의 가면' 展 5월7일까지



원로작가 서상환 화백<사진>이 자신의 39번째 개인전 '신의 가면'전을 연다.

지난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민락동 미광화랑(☎758-2247)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작가의 작품세계를 알 수 있는 37점의 작품이 선을 보이고 있다. 나무판에 아크릴과 혼합매체를 이용한 작품은 작가의 신앙관이 잘 나타나 있는 여러 얼굴 형상과 가면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서 화백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은 본래의 형상이 아닌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흡사 가면을 쓴 인간을 보는 듯 하다는 데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